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9월 9일 수요일 | 302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모래로 뒤덮인 불모지에 현대건설의 저력을 펼치다



현대건설이 2018년 완공 예정인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 현장 모습.



Photo News

현대건설은 쿠웨이트에서 '국가 기반 시설 도우미'로 통한다. 1977년 슈아이바 항만 확장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쿠웨이트에 진출한 현대건설은 이후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로·정유공장·발전담수·송변전 등 60여 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행하며 쿠웨이트 정부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 왔다. 현재는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해 수비아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해상교량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를 시공하며 쿠웨이트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 시공한 ①쿠웨이트 뉴 오일피어(New Oil Pier) ②쿠웨이트 부비안 항만 ③슈아이바 북부 발전소 ④자하라-수비아 300KV 송전선

현대건설, 해외 실적 국내 부동의 1위

美 ENR誌, 韓 업체 12곳 등재 중 14위로 가장 높아

현대건설이 국내 최고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세계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지난해 매출액에 근거해 발표한 세계 250대 건설사 중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인터네셔널(International)' 부문 14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기업 가운데 최고 순위로, 올해 250위 순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ENR은 미국 닷지 데이터&애널리틱스(Dodge Data & Analytics)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건설 전문지로 매년 전 세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실적을 집계해 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네셔널 부문은 전년도 해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글로벌(Global) 부문은 국내외 실적을 합산해 순위를 산출한다.

현대건설은 저유가 기조로 인한 중동 오일머니의 감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 계속된 해외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96억8740만 달러의 해외 매출액을 기록해 78억4500만 달러를 기록한 삼성물산과 큰 차이로 2년 연속 국내 1위를 고수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글로벌 부문 매출액에서도 163억6640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 중 최고 순위인 17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이후 꾸준히 펼치고 있는 해외 시장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주주 지역 다변화가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많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황 속에도 좋은 실적을 올린 것 같다"며 "현대건설이 지난해 해외에서 신규 계약한 물량 또한 삼성물산의 신규 계약 물량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해외 시장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ENR 인터네셔널 부문 250대 건설사 1위는 스페인의 ACS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분석'에서 7.1%의 점유율을 기록해, 독일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 ENR 집계 해외 실적 기준 세계 250대 건설사 중 한국 건설사 순위

건설사	순위	지난해 해외매출액
현대건설	14위	96억8740만달러
삼성물산	16위	78억4500만달러
GS건설	26위	51억1550만달러
대림산업	34위	34만2170만달러
SK건설	42위	29억1510만달러
대우건설	43위	28억6760만달러
포스코건설	59위	23억990만달러
한화건설	78위	13억8910만달러
쌍용건설	117위	5억9000만달러
포스코엔지니어링	150위	4억380만달러
롯데건설	163위	3억4150만달러
한국전력공사	217위	1억7320만달러

Hyundai E&C ranks 1st among local builders in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ing export revenue

Hyundai E&C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Korea's top global construction company.

Korea's primary builder has ranked 14th on the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based on general construction contracting export revenue. The ENR rankings were published on August 24. Among Korean builders on the list, Hyundai E&C has ranked the top. This year, 12 Korean construction builders are on the list of the 250 largest world construction contractors.

Engineering News-Record, widely known as ENR, is a magazine published by Dodge Data & Analytics. It is the bibl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provides the rankings of global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mpanies on an annual basis. The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is based on annual revenue generated from projects outside each firm's respective home country, and the Top Global Contractors on total construction contracting revenue regardless of where the projects were located.

Despite a significant drop in oil prices in the Middle East and the volatile global financial market, Hyundai E&C has ranked first in the country by recording 9,687 billion dollars of construction contracting export revenue last year, maintaining the first position for two consecutive years by a large margin from Samsung C&T Corporation which earned 7,845 billion dollars overseas. In addition, Hyundai E&C has ranked 17th on the Top Global Contractors by generating 16,366 billion dollars of total construction contracting revenue, which makes the builder the first in the country.

NEWS

- 동티모르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공사 '본격 착수'
- 글로벌마케팅본부-연구개발본부 공동 세미나 시행
- 2015 현대건설 혁신대상 수상작 선정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현대자동차그룹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서울 양재동 본사에 위치한 청년고용지원센터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현대자동차그룹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전담기구로 청년들의 채용 및 취업,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그룹 내 채용, 교육, 인턴 등을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들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담당자들을 센터에 합류시킬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청년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룹 해외 인턴제 시행 지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현장·부서 소식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현장 기공식

여수신북항 외곽 시설 축조공사 현장이 지난 1일 기공식을 가졌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우리 회사 해양환경국내사업실 박찬복 상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폐쇄된 여수신항 북쪽에 2020년까지 새 항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2019년 5월까지 1360m의 방파제·방파호안을 준공할 계획이다.

품질혁신실,

'2015 1차 협력회사 품질 워크숍' 실시

PRM사업부 품질혁신실이 지난 4일 서울 계동 본사 인근에 위치한 현대문화센터에서 59개 현장에 소속된 159개 협력회사 현장소장 및 본사 직원 등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1차 협력회사 품질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품질혁신실 관계자는 "현장의 품질은 협력회사의 품질에 좌우된다고 보고 매년 '협력회사 품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10월과 11월에도 2, 3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지난 달 26일 개장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 3, 4부두에 총면적 9만3932㎡,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지어졌다. 2012년 7월 착공한 현장은 사업비 2343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278만 명기량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1978년 완공된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의 10배 수준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고성능 창호 등 에너지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각종 인증기관으로부터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등급'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등의 대외인증을 받았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서는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 김법석 차장이 터미널 건립공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동티모르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공사 '본격 착수'

지난달 27일, 현지 계약서명식

우리 회사가 지난달 27일 동티모르 현지에서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공사'의 계약 서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을 비롯해 알프레두 피레스(Alfredo Pires) 석유부 장관, 사나나 구스망(Xanana Gusmao) 기획부 장관, 프란시스코 몬테이루(Francisco Monteiro) 석유가스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주처 관계자는 "풍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아 기쁘다"며 "동티모르 지역 정유·에너지 개발 계획의 첫 단계

라 할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주한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공사'는 동티모르 남부 해안 수아이 지역에 해상유전 개발을 위한 공급기지 및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7억1921만 달러(약 7911억원) 규모다. 우리 회사의 계약금액은 60%인 4억2300만 달러(약 4655억원)다.

우리 회사는 3.3km에 달하는 해상 방파제 건설 및 준설작업을 포함한 해상공사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육상 공사를 각각 진행한



지난달 27일 동티모르 현지에서 열린 '수아이 물류보급기지 공사'의 계약 서명식.

다. 현장은 수도 딜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138km 떨어져 있으며, 공사기간은 총 36개월이다.

이와 함께 동티모르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사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동티모르 사랑의 헌옷·신발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건설기술학교, 지역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CSR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Our company embarks on Suai Supply Base project

Our company held a signing ceremony in East Timor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uai Supply Base project on August 27.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Hyundai E&C CEO Jung Soo-hyun, Minister of Petroleum and Miner-

al Resources Alfredo Pires, Minister of Defense and Security Xanana Gusmao and Timor GAP CEO Francisco Monteiro.

The project clinched jointly by Hyundai Engineering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supply facilities and a

seawall to be used for oil development off the southern coast of Suai. Our company accounts for 60 percent of the deal valued at approximately 791.1 billion won.

Our company will be responsible for building a 3.3-kilometer seawall

and dredging works, and Hyundai Engineering will lead the construction of ground-based facilities.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about 138 kilometers southwest of the capital Dili. The construction is expected to take 36 months.

부서 협력 통해 시너지 창출한다

글로벌마케팅본부-연구개발본부 공동 세미나 시행

글로벌마케팅본부와 연구개발본부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연구개발본부 세미나실에서 'New Biz 발굴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본부 간 업무 협력 기반을 토대로 밸류 체인(Value Chain) 확대와 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형일 글로벌마케팅본부장, 이석훈 연구개발본부장, 이재환 인사실장을 비롯해 각 팀의 실장, 팀장, 실무책임자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연구개발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11명의 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시장 진출 방안과 전략 등을 모색했다. 글로벌마케팅본부장의 총평을 끝으로 참석자들은 GSIC, 풍동실험실 등 연구개발본부 투여 시간

을 가졌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한 세미나는 미래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을 위한 토론의 장이었다"며 "향후 정례적인 업무협의체 운영, 직무교육 공동 참여 확대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 현대건설 혁신대상 수상작 선정

우리 회사가 지난 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5 현대건설 혁신대상'의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연구개발본부와 글로벌마케팅본부에서 공동 출품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과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회를 맞이하는 '현대건설 혁신대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제조 ▶서비스/인프라 ▶조직문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47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10개 팀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에너지 절감형

하수슬러지 처리기술'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처리공정 개선 ▶공정 내 폐열 회수 ▶생산된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감소시킨 혁신적인 기술이다. 현재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이 있으며, 향후 해외 하수처리장 사

업에도 적용해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프라환경사업본부의 '인공섬 호안 축조 설계 및 시공법 개선', 건축사업본부-연구개발본부의 'BIM 기반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건설 프로세스 선진화'가 최우수상을, 건축사업본부-연구개발본부의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 건립 및 활용을 통한 그린스마트 사업화' 등 3개 과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대상 주요 수상작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하는 '2015년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 당사 대표로 출품될 예정이다.

현대 힐스테이트 금호·청계 동시 분양



힐스테이트 청계와 힐스테이트 금호가 지난 4일 동시 분양에 나섰다.

힐스테이트 청계 모델하우스에는 주말동안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힐스테이트 청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8개 동, 전용 면적 40~84㎡ 총 764가구로, 이 중 50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다. 청약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를 받는다.

힐스테이트 금호 모델하우스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5개 동, 59~141㎡ 총 606가구 규모로, 이 중 73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금호는 지하철 3호선 옥수·금호역, 5호선 신금호역과 동호대교·성수대교를 이용해 강남권 및 도심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명품하우징 대상'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수상

우리 회사가 '2015 대한민국 명품하우징 대상'과 '2015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에서 각각 최우수상, 준공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건설종가(宗

家)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우리 회사의 '힐스테이트 송담' 현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명

품하우징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평택 서부권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송담'은 단지 내 소나무와 수로, 잔디마당이 어우러진 넓은 중앙 조경 공간을 배치해 입주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했

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5회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는 우리 회사의 코엑스몰 리모델링 현장이 준공부문 대상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현장이 특선을 수상했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Central, city government debut plans for Han River

Aug 25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Seoul are turning the Han River into a new tourist attraction, just like the Seine in Paris and the Thames in Lond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ld a meeting with four different ministries on Monday at the Korea Press Center, central Seoul, and released a general development plan for the Han River to attract tourists and restore the nature along the river.

"The infrastructure along the river had effectively circulated people and goods in the city, but the river has become desolate due to concrete banks and roads," said Seoul Mayor Park Won-soon. "If the Han River revives and attracts people again, it will become a great tourist attraction, and it will be the second Miracle on the Han River."

Choi Kyung-hwan,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chaired the meeting.

"The Han River, the symbol of Korea's modern history, has world-class potential in its natural environment," Choi said.

"With more tourists and residents at the Han River, we will be able to create more jobs in the service industry in various fields such as culture, logistics, sports, leisure and art."

The river is being divided by the central and city government into seven different sections, and the first section to be revamped will stretch from Yeouido to Ichon-dong.

The city government explained that the section has the most visitors and is home to existing tourist spots like Yeouido Park, Saetgang Tributary and the Bamseom islet.

According to the plan, a riverside cultural complex - temporarily named "Yeouimaru" - will be built on Yeouido. It will house a pier that can moor a 700-ton ferry, which will also feature cafes and restaurants.

The city government also plans to operate amphibious sightseeing buses that will take tourists from Yeouido to the Hongdae area of western Seoul.

Some other parts of the section are being turned into green spaces.

In the Yeouido area, parts of the riverside are being turned back into forest. In the Icheon area, concrete



sections are going to be restored into wetlands. Nearby, restaurants and cafes will be built for visitors.

After reviewing the plan later this year, construction on the Yeouido-to-Ichon section will begin in 2017. The construction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19.

The budget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section is 398.1 billion won (\$330 mill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each pay half the cost.

정부-서울시 한강 개발 계획 발표

정부와 서울시가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과 같이 한강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4개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강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변 인프라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졌지만 콘크리트 호안과 도로로 인해 한강이 황폐화됐다"고 지적하고 "한강이 다시 회복된다면 관광명소가 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강은 한국 근대사의 상징이며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세계 수준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강에 관광객, 주거인구 등이 늘어나면 문화, 물류, 스포츠, 레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 구간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여의도~이촌권역을 우선 정비한 뒤 다른 권역으로 개발 계획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이촌권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기존 여의도 공원, 샛강, 밤섬과 같은 여행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수변문화지구인 가칭 '여의마루'를 조성해 700t급 페리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고 카페와 레스토랑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에서 서울 서부의 흥대지역을 잇는 관광용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구간은 녹지공간으로 정비된다. 여의도 지역의 강변은 녹지로 조성하고 이촌 지역의 콘크리트 호안

구간을 습지로 회복시킨다. 근처에는 관광객을 위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반기 중 계획을 검토한 뒤 2017년께 여의도~이촌권역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 2019년 마무리할 전망이다. 총 3981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개발사업의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가 50:50으로 분담할 예정이다.

▼ Key expressions

- desolate: 황량한, 적막한
- revamp: 개조(수리)하다
- moor: 배를 계류(정박)하다

S. Korea celebrates victories in World Cup Asian qualifiers

Sept 09

South Korea beat Lebanon 3-0 on Tuesday in the third round of the 2018 World Cup Asian qualifiers.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country has defeated Lebanon in an away game in 22 years. South Korea's last win over Lebanon on the road came in 1993.

In Korea's dominant 8-0 victory against Laos last Thursday in the second round, Son Heung-min was the main hero by getting a hat trick.

But if Son was the main dish prepared by coach Uli Stielike, Suwon Samsung Bluewings midfielder Kwon Chang-hoon was the spicy sauce that heated things up. Kwon, who made his national team



debut in the EAFF East Asian Cup last month, has now scored two goals in four matches. Kwon's skills have

been attributed to his former coaches, Suwon coach Seo Jung-won and assistant coach Ko Jong-soo.

The Olympic football team coach Shin Tae-yong, who is also an assistant under Stielike, said that Kwon will be busy in October, considering that he needs to help Suwon in the K-League Classic while also playing in Olympic team and national team matches.

Kwon's impressive performance against Laos on Thursday is hopeful, but it doesn't guarantee his spot on the squad.

In the match against Laos, captain Ki Sung-yueng, Jung Woo-young and Kwon were the starters in center midfield, but Lee Jae-sung of Jeonbuk Hyundai Motors and Kim Seung-dae of the Pohang Steelers are also eyeing the spot.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ersonal Question 유형

Q How would you spend your vacation?

SAMPLE ANSWER

In this vacation, I want to spend my own time. I recently spend too much time with people. It was enjoyable time, but I want to have my own time to think about myself. I will go abroad alone with some books and camera. I haven't chosen the country yet. All I need is 'my time' to think about myself and renew my mine to another daily life. That's my plan to this vacation.

Opinion Question 유형

Q Q. What do you think about diet syndrome in nowadays?

SAMPLE ANSWER

Recently, I can see many people who wear skinny clothes and go exercise every day. Exercise boom is good for our health. It can make my body well and daily life also. Unless good side of this boom, I have some worries about it. People tend to concentrate in nice body. They spend too much time in exercise and eat too less food. They eat only salad or protein-powder for meal. They stay from the right path. Our body needs variable ingredients to build our body. Too much diet can harm our body. I think we need to make a limit on it. Doing diet must concentrate in not nice body but health.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MOVIE

Adults, not kids, are driving the animation trend

Sept 04: Animated movies are having a great year, in part thanks to 'kidults'. Starting with Pixar-Disney's "Inside Out" which opened in July, a string of successful animations has followed, including Illumination's "Minions".

"Inside Out" attracted nearly five million moviegoers, making 37.8 billion won (\$31.7 million) in Korea, becoming the third most-watched animation of all time in the country. "Minions" has sold 2.6 million tickets to earn 18.7 billion won.

Behind the phenomenon is the rising number of "kidults" who are grown-ups who share the hobbies and sentiments of kids.

The movie's simple yet heartwarming message may have also attracted the older generation, whose reality might not be so heartwarming.



REPORT

쿠웨이트만 바다 위, 해양의 습기가 몸을 감싸고 여름이면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에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현장이 현대건설의 역사를 새내려가고 있다.

우리 현장 최고 (83)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현장

글로벌 랜드마크, 지구 위에 36.14km 획을 긋다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현장 전경.

세계 최장의 다리를 짓다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해 수비아 지역을 연결하는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Kuwait Sheikh Jaber Al-Ahmad Al-Sabah Causeway) 현장. 이 현장은 수비아 신도시 개발을 통해 국가를 균등하게 발전시킨다는 쿠웨이트 정부의 마스터 플랜 아래 발주됐다. 특히 이 교량은 쿠웨이트 선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을 정도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2013년 11월 쿠웨이트 공공사업성(Ministry of Public Works)에서 발주한 26억2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이 공사를 현지 업체(콤바인드 그룹)와 공동 수주했다. 전체 공사비 중 우리 회사의 비중은 78.53%인 20억6000만 달러로 1984년 리비아 대수로 이후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해외 토목공사로는 최대 규모다. 더 나아가 '20세기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이후 최대 규모 토목공

사로 꼽힌다.

총연장 36.14km, 왕복 6차로(비상차로 2개 포함할 경우 8차로)의 메인 링크(Main Link) 교량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교량이 된다. 국내 다른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도하 링크(Doha Link, 연결구간) 12.43km를 합치면 전체 길이가 48.57km에 이른다. 이는 중국 칭다오(靑島)의 하이완(海灣) 대교(41.58km, 6차로)를 뛰어넘는 세계 최장 다리로 전 세계에 우리 회사 교량 기술력의 명성을 떨칠 랜드마크 현장이 될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각료진이 중동 순방 중 우리 현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혹서의 바다 위 '현대건설의 저력'을 보여준다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 공기는 6개월로 세계적인 공사 규모와 비교하면 뻘뻘한 일정이다. 하지만 착공 후 22개월이 지난 8월 말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계획 대비 3%의 선행 공정을 지켜나가고 있다. 현장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변북로(28.5km)보다 7km 이상 긴 도로를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세우는 공사인 만큼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쿠웨이트만에 고층 빌딩 한 채보다 높은 길이 40~60m, 지름 3m의 콘크리트 보드파일(Bored Pile)을 육상과 해상 구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1100본의 보드파일 위에 길이 60m, 자체 중량 1800t에 이르는 콘크리트 교량 상판 958개를 육상 PC 야드(Precast Girder Production Yard)에서 제작한다. 이후 초대형 해상장비인 1800t 론칭 겐트리(Launching Gantry), 2200t 대형 해상 크레인(Floating Crane)을 이용해 바다 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해상 교량은 총 27.5km로 구성되며 PSC(Pre-stressed Concrete: 강선보강 콘크리트) 박스 형식의 경간장 40m와 60m로 표준화해 설계했다. 시공법은 FSLM(Full Span Launching Method) 공법으로 론칭 겐트리와 대형 해상 크레인을 사용해 수심별로 구분해 일괄 가설 시공하고 있다.

● FSLM 공법: PC야드(상판 제작장에서 제작된 Pre-stressed Concrete 박스 거더를 특정 위치로 이동해 한번에 설치하는 시공법.

랜드마크인 주교량(Main Bridge)은 이 공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사의 가장 복잡한 설계와 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비대칭 일주탑 사장교로 설계됐다. 주교량은 전체 프로젝트 중 가장 상징성이 강한 하프 모양의 강사장교 형식으로 시공돼 곡선의 유려한 아름다움을 뽐낼 예정이다.

또한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는 해상 교량 중간에 10만 평 규모인 2개의 인공섬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남측과 북측에 조성되는 인공섬 내부에는 총괄관리본부, 방재유지관리, 구호 시설, 관광시설 등 많은 건물과 시설들이 들어서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섬 외곽에 도로를 놓아 섬 내부와 외부 조망을 즐길 수 있으며, 휴양장소로 마리나 리조트 등이 들어서 향후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환경을 생각하며 품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다

우리 현장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해저조사를 진행해 쿠웨이트만의 생태계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섬 인근의 해저 지반이 단단해 해조류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량 시공으로 인한 환경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보호종인 새우(Green Tiger Shrimp)와 서식용 어초를 위해 특수 블록을 제작, 바다에 투하해 대체 서식지를 조성했다. 대체 서식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자 쿠웨이트 정부를 비롯한 국민은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 현장의 이러한 환경보호활동은 쿠웨이트 환경청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은 물론,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우리 회사는 비대칭 사장교인 주교량의 내풍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람에 의한 동적 효과 검토 등을 위해 풍동 실험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거더 단면 풍동 실험(Girder Section Model Tests), 독립 주탑 모형실험(Free Standing Model Tests), 전교모형실험(Full Bridge Model Tests) 등을 시행했고, 우리 회사의 풍동실험실을 중심으로 국내 우수 대학들과 협조해 성공리에 실험을 완료했다.

아울러, 우리 현장은 중동 특유의 사막과 해수의 영향을 극복하는 최적화된 배합설계를 도출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실험을 통해 염화물 침투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다.

우리 현장은 3000여 명의 근로자와 500대의 장비가 동원되는 초대형 현장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는 현재까지 1000만 시간 무재해를 달성 중이다. 우리 현장 직원들은 세계 최장 다리를 건설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글=유진형 과장



1 수비아 PC 거더 제작장 전경. 2 현장 조감도.



MINI Interview 현장소장 박찬수 전무

“36.14km의 바닷길을 현대차로 달리는 꿈을 현실로”



우리 현장은 지난 40여 년간 쿠웨이트에서 쌓아온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해상교량 공사를 탄기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만 바다 생물의 서식지에 위치한 우리 현장은 10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설계,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최고의 품질, 안전 시공을 목표로 전 직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불철주야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36.14km, 왕복 8차로(비상차로 2개 포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조 아래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도출 등을 통해 신공법 도입과 설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환경사업본부의 대표 현장으로서 또 하나의 명품 다리를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그 날까지 전 직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고 길이 기억될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겠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해낸 거대 중량물 설치 작업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직경 23m, 총 중량 2400t에 이르는 Main Bridge Pylon 원형 PC house 2기 설치가 완료됐다. 우리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물의 설치를 위해 현장 직원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준비했다. 바다 날씨를 컴퓨터 시뮬레이션해 설치 가능 작업을 정확히 산출했으며, 동 분석 자료를 토대로 쿠웨이트 바다의 파도의 속도, 조류의 속도 등을 면밀히 관찰해 최적의 PC House 설치일과 설치 시간대가 확정됐다. 작업 당일 감도는 긴장감 속에서 현장 직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인양 준비에서부터 설치 완료까지 3일이 소요되는 거대 중량물 설치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리에 완료됐다.



MARKET

세계 경제 침체로 국제유가가 급락할 요즘, 쿠웨이트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쿠웨이트 건설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오일달러와 올 초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5~2020)을 통해 인프라 사업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때문이다. 글=김중국 실장(해외건설협회 지역2실)



쿠웨이트 시내 전경.

건설칼럼 16 쿠웨이트

국제유가급락에도 인프라 발주 UP 쿠웨이트 건설시장

아라비아반도 동북단에 위치한 쿠웨이트(State of Kuwait)는 국토 면적이 경상북도 크기(1만7818km²)에 불과한 소국이다. 열대성 사막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6도지만 아주 더울 때는 50도를 훌쩍 넘는다. 400만 명 정도인 인구의 대부분은 외국인(약 70%)이며, 주로 제3국 근로자들이다.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수니파(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이자 정통파)가 다수다. 196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영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쿠웨이트는 같은 수니파의 맹주(盟主)인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시아파(수니파 다음으로 큰 분파)의 맹주격인 이란 및 이라크 등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종종 분쟁에 휘말리곤 한다. 걸프전의 단초가 됐던 1990년 8월 2일에도 이라크의 침공으로 6시간 만에 수도 쿠웨이트시티(Kuwait City)가 함락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다. 당시 퇴각하던 이라크군은 650개의 쿠웨이트 유정(油井)을 방화했으며, 그 결과 걸프해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유출됨에 따라 심각한 오염 피해를 물론 수년간 경제난을 겪었다.

올 초 제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발표 ... 주택 공급 확대 철도·지하철 건설 추진 예정



왕권 계승 둘러싼 분쟁 심화

입헌군주국인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주요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왕실 가족들이 총리 및 장관 등 정부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대정부 비판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야권 인사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왕의 독점적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서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의회제도가 존재함에도 정당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 간 갈등도 자주 일어나 심할 경우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개각과 총선을 새로 실시하기도 한다. 2006년에 새 국왕(Sheikh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이 즉위한 이후 여섯 차례 총선이 실시된 결과 의회는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2년 2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야권 및 이슬람주의 성향의 후보들이 전체 50석 중 34석을 획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자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국왕의 총선 실시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의회를 해산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유권자 한 명이 네 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법을 한 명에게만 투표하도록 개정하면서 야권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과 정정 불안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 요인으로 내재돼 있는 상황이다.

왕실 내부의 권력 승계 갈등도 심상치 않다. 알-사바(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이 85세로 고령이며,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셰이크 나와프(Sheikh Nawaf al Ahmad al Jabir al Sabah) 왕세제도 77세다. 이 때문에 왕자들 간 파벌 형성과 경쟁이 치열해 향후 정치적 갈등 우려가 있다.

과다한 석유 의존,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

쿠웨이트는 석유와 가스 자원의 매장량이 각각 세계 6위(1015억 배럴), 18위(1.8조m³)로 국가 규모에 비해 매우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수년간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결과 현 지인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5만 달러로 매우 높으며, 국부펀드 규모도 5480억 달러로 상당히 많다.

그러나 과다한 석유 의존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세계 경제 침체로 국제유가가 급락할 때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쿠웨이트 석유산업은 2013년 기준 GDP의 52%, 재정수입의 94%, 총수출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및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국제유가의 하락세 고착은 쿠웨이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한때 8~10%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휘발유 및 수도, 전기 등의 보조금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또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쿠웨이트가 지난 7년간 3배 증가한 공공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저유가 영향으로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금 인상 및 보조금 감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수입가격의 하향 안정세로 인해 물가는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2.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웨이트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걸프 지역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로 활약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란-이라크 전쟁(1981)과 걸프전(1990)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카타르에 그 지위를 빼앗긴 상태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 프로젝트 선별적으로 추진할 듯

지난해 4월 국내 건설사는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클린 퓨얼 프로젝트(CFP: Clean Fuel Project)를 수주했다. 이는 쿠웨이트 석유가스 부문에서 과거 10년간 수주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지난 7월에는 현대건설-SK건설-사이페(Saipem)이 참여하는 합작 회사(Joint Venture)가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KNPC)가 발주한 15억 달러 규모의 아주르 신규 정유 공장(NRP) 패키지 5번 해상유류출하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쿠웨이트 건설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대로 작은 편이다. 의회의 감사제도도 발달해 프로젝트 집행률이 전체 예산 규모의 60~70%로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2013년까지 3%대 성장을 해 온 쿠웨이트의 건설시장은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석유 부국으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진출하기 좋은 국가로 분류된다.

쿠웨이트는 2015년 1월에 확정된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5~2020)의 일환으로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확대 ▶철도·지

하철 건설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추진하게 될 프로젝트는 500여 건으로 쿠웨이트 정부는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해 3월에는 외국 회사들의 사업 참여와 자본 투자가 용이하도록 정부간합작투자(PPP)법이 개정됐다. 이 법으로 입찰 과정이 간소화돼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쿠웨이트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은 ▶비석유 부문 확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 ▶원활한 물 공급 등이 주축이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감소 여파로 프로젝트 발주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으나 보건 및 교육, 철도 및 메트로, 도로, 수처리 시설 등의 인프라 사업은 큰 영향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기준 주택 대기자가 11만 명에 육박하는 것에 반해 주택 공급량은 연간 2000호에 불과했다. 대기자는 매년 80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신도시 개발을 통해 1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진출 시 유의사항

절충교역(Offset Program) 외국 기업이 계약금액 1000만 쿠웨이트디나르(약 3500만 달러) 이상인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금액의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건설 부문에서는 수전력부(MEW) 발주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공공 사업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관련 프로젝트와 PPP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쿠웨이트투자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ng Authority)이 담당하고 있다.

비자 발급 취업 비자 발급 시 주한 대사관에 범죄 경력 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같은 경범죄도 해당돼 적기에 인력을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폐질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

쿠웨이트의 전통과 현대를 즐긴다 추천 여행지 Best 4



쿠웨이트 타워.

쿠웨이트 타워 Kuwait Tower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타워형 건물로 현대 쿠웨이트를 상징하는 대표적 조형물이다. 2개의 대형 타워와 1개의 소형 타워로 이뤄져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전망대도 있다. 쿠웨이트시 시내와 걸프만 연안을 조망할 수 있으며, 야경이 유명하다.

에비뉴 몰 Avenue Mall

쿠웨이트는 뜨거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몰(Mall)이 발달돼 있다. 그중에서도 에비뉴 몰은 쿠웨이트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영화 감상, 쇼핑, 맛집 탐방을 하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엔터테인먼트 시티 Entertainment City

쿠웨이트 최대 놀이공원으로 해변에 위치한 데다 각종 놀이기구가 있어 주말에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방문 적기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특히 장관이다.

타렉 라자브 박물관 Tareq Rajab Museum

미술과 고고학을 공부한 타렉 사예드 라자브(Tareq Sayed Rajab)이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하며 수집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개인박물관이다. 서기 1000년께 양피지에 쓴 쿠란 등의 각종 필사본과 비취 세공품, 의복과 직물, 보석류와 악기 등 이슬람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다.

FOCUS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 시행!

대인관계, 자녀교육, 직무 스트레스...

“마음속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1, 2 심박변이기와 설문 응답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고 있다. 3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시작을 알리며 우리 회사를 방문한 상담사들과 한국EAP협회 직원들. (왼쪽부터) 황선에 상담사, 박속자 상담사. 이경애 과장, 김정화 상담사, 임성진 부장. 4, 5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의 특강을 직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Part 1

상담사 3인 인터뷰 “비밀은 철저히 보장...가볍게 만나 깊은 대화 나눠요”

우리 회사 임직원의 고민을 들어줄 상담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사보신문)은 마인드체크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1일 서울 계동 본사를 방문한 상담사들을 만났다.

Q. 마인드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사 임직원을 처음 만났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박속자 현대건설 본사에 처음 방문했는데, 기분 좋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도 했고요(웃음). 요즘은 스트레스 자가 진단, 성격유형검사(MBTI), 심박변이기 검사 등 간단히 자신의 마음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스트레스 자가 진단 지수와 심박변이기로 검사한 결과가 크게 달라 놀라지는 직업이 많았어요. 그 자리에서 추가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김정화 저희 상담사들은 현대건설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마다 특성이 보이죠. 오늘 만난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 애사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조직 내에서도 1등, 가정에서도 1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로해지고 무기력감이 생기죠.

김정화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로도 필요하지만, 자기에 자능이 높아야 해요. 오늘 참석하신 직원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강한 분들이었어요. 현대건설이 국내 본선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력, 자격증도 필요하겠지만, 타고난 성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화 상담사는 윤련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성품에 좌우되지 않아요. 화해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증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박속자 맞아요.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상담 지식은 물론 임상 경험도 충분히 쌓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상담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자기분석이에요. 상담사의 능력만큼만 내담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보다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황선에 요즘 소름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말을 하는 건 능숙하지만, 듣는 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상담사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Q. 세 분의 전문 상담 분야는 무엇인가요.

황선에 부모와 재무를 담당하는 상담사는 따로 있고요. 저희 세 사람은 모두 심리 상담을 맡고 있어요. 심리 상담에도 영역이 아주 많은데, 저는 조직심리학, 부부·가족 상담학을 주력해서 공부했어요. 사실 심리 상담은 전체를 아울러야 해요. 만일 자녀 양육이 고민이라면, 자녀를 살린 후 부모를 탐색해야 하고, 그다음엔 부부관계를 들여다봐야 하죠.

김정화 어떤 사람이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칠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직장 생활에 대한 것만 살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께 봐야 해요. 어떤 식도 필요하지만, 자기에 자능이 높아야 해요. 오늘 참석하신 직원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강한 분들이었어요. 현대건설이 국내 본선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사들은 상담 관련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개인적인 문제부터 직장생활 고민까지 모두 상담 가능!”

황선에 내담자가 열심히 노력해도, 분명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업이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개인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EAP협회가 대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제언하는 거죠.

박속자 한국EAP협회에서 회사에 제안하는 부분이 상담이 거듭될수록 표정이 밝아져요.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죠. 김정화 저희도 같은 정보는 꽤요. ‘앞으로 현 대건설이 고민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분석해 보고요.

김정화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회사가 알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개인의 사생활은 회사를 아물려야 해요. 만일 자녀 양육이 고민이라면, 자녀를 살린 후 부모를 탐색해야 하고, 그다음엔 부부관계를 들여다봐야 하죠.

김정화 어떤 사람이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칠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직장 생활에 대한 것만 살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께 봐야 해요. 어떤 식도 필요하지만, 자기에 자능이 높아야 해요. 오늘 참석하신 직원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강한 분들이었어요. 현대건설이 국내 본선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상담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황선에 최근 상담을 종결한 사례인데, 그분은 무기력감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만큼 의욕 없는 시간을 보낸 분이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활력을 찾는 모습을 봤죠. 운동과 아홉 공부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크게 기뻐어요.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해 철저히 비밀로... 총 8회까지 상담 OK!”

박속자 상담 1회기 때는 표정이 어둡던 직원이 상담이 거듭될수록 표정이 밝아져요.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죠. 김정화 저희도 같은 정보는 꽤요. ‘앞으로 현 대건설이 고민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분석해 보고요.

Q. 상담에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황선에 오늘 상담할 때도 몇몇 분이 부담스러워하시더군요.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 선수가 축구 선수가 운동을 잘하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코치에게 지도를 받았어요.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통해 코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질 거예요. 김정화 상담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겐 가려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으로 삶의 탄력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박속자 사실 개인이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이 부담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개 인적으로 받기 힘든 심리 상담을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직원 모두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 의 삶에 애착이 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모쪼록 이 기회를 현명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Part 2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 A to Z

해의 현장 근무는 우리 회사 임직원의 숙명 과도 같은 것이다. 당연히 가야 하지만,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와 몇 년씩 떨어져 지 내는 것이 부담이다. 또 한국에 돌아온 후 자 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져 고민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마음의 짐을 털 기회가 생겼다.

우리 회사가 1월부터 시행 중인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Employee Healing Program)’은 심리상담 전문가인 한국EAP협회에 소속된 전문상담사를 통해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직원 복지 서비스. 자녀 교육, 양육, 코칭부터 가족 내 의사소통, 부부갈등, 대인관계, 우울, 무기력감, 직무 스트레스, 제테크, 법률 등 각종 고민거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를 통해 운영되어 온 ‘직원 상담 센터’와 ‘온라인 건의함’의 경우 회사 관련 주제에 국한돼 있는 것에 반해,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임직원의 마음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외부의 전문상담사가 회사에 관한 것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현장 근무자를 고려해 한국EAP협회에 소속된 전국 7개 지역, 185개 상담센터와 연계해 현장 혹은 자체 인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해외 현장 근무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1566-5228), 카카오톡(ID:eaiph0140) 등을 이용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우리 회사는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시작을 알리며 지난 1일 서울백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우종민 교수를 본사에 초청해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우종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2011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상담 비율은 미국 39.2%, 뉴질랜드 38.9%, 호주 34.9%지만, 한국은 15.3%에 불과하다. 한국이 얼마나 상담에 소극적인지 알 수 있는 수치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30~50대의 사망 원인 중 많은 수가 자살이라는 것을 볼 때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본사 지하 1층 쉼터라운지에서 심박변이기와 설문 응답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고 이에 따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 체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 직원 힐링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ehp.hdec.kr)를 개설해 임직원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스트레스를 자가진단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사를 우리 회사 직무교육까지 받아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의 역량 이 중요하다. 우리 회사 임직원을 담당할 상담사들은 한국 상담심리학회 등에서 부여하는 상담 관련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다. 상담사들은 우리 회사의 업무 및 조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무 교육까지 받았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 영역은 ▶해의 현장 직역, 동료/상사와의 갈등, 직무 스트레스, 업무 적성, 경력 개발, 성희롱, 성차별 등 ‘직장 영역’▶부하 직원 코칭, 팀 관리, 리더십 및 의전 조율 등 ‘인재관리 영역’▶각종 스트레스, 우울/불안, 가족관계, 부부 갈등, 이성교제, 결혼 문제 등 ‘개인 및 가정 영역’▶자녀 양육 방법, 자녀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자녀 교육 영역’▶보통, 채무, 부당선, 재정상태 평가, 법률문제 자문 등 ‘재정 및 법률 영역’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부터 직장생활에서 생기는 고민까지 두루 상담받을 수 있는 것.

상담은 직원과 상담사가 협의해 월~토요일 오전 9시~저녁 9시 사이 자택을 제외한 곳에서 진행하며, 직원 1인당 총 8회기(1회기당 50분 이내)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근거해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 비용은 전액 회사가 지원한다.

‘실제 사례’ 상담 후 이렇게 바뀌었어요~!

<h3>Case 1</h3> <p>번아웃 증후군 겪은 무역회사 김모씨</p> <p>물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꿈꿔 온 상로. 직장생활은 이것이 아니라 생리가 더니 점차 무기력해지더군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후배에게 마음을 달랠 수도, 상사에게 혼날 때도 있는 보통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러자 주변 환경과 회사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저는 바뀌었어요 상담 덕분에 활기찬 직장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p>	<h3>Case 2</h3> <p>자녀 양육으로 고민이던 워킹맘 자동차회사 이모씨</p> <p>초등학교 2학년인 제 큰아들은 너무 산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으며 공부도 많이 부진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상담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 이던 아이도 상담사의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인지기 관적응했고,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상담으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 자신이에요. 큰아이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했고, 동생이 태어난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자신을 케어하지 못했었거든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이를 키우는 데 확신이 조금은 생겼습니다.</p>	<h3>Case 3</h3> <p>재무 관리가 절실퟈던 두 아이아빠 유통회사 박모씨</p> <p>결혼 후 두 아이가 태어났지만, 맞벌이 부부였기에 여유롭게 생활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무 관리를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건강보험이나 연금저축 등도 누군가가 추천해 주는 대로 가입하곤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료의 추천으로 재무 상담을 받았고, 소득 및 지출 분석을 통해 재무 설정을 시 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매월 준손계 무 리 가족의 지출 내용을 미리 계획합니다. 이 좋은 습관으로 아내와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 니다. 감사합니다.</p>
---	---	--

‘직원 힐링 프로그램’ 상담 이용 절차 및 방법



인사실 권문한 부장 인터뷰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직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마음 건강을 관리하세요!



Q.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을 올해 노사 합의로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 상담 센터와 온라인 건의함과 같은 직원 소통 채널이 회사 관련 주제에 국한돼 있는 것에 반해,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부부 문제, 자녀 양육, 대인 관계를 비롯해 재무, 법률에 이르는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까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합니다.

Q.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본사나 국내 현장의 경우 1:1 대면 상담이 상시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e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을 마련했으며, 휴가 기간을 이용해 대면 상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 양육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한 직원 힐링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마 ‘과연 회사가 상담 내용을 모를까’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83 조에 의거 상담 내용이 철저히 비밀 보장되는 순수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또 워킹맘 체인(사)한국EAP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 유수의 국가기관 근무자 지원프로그램을 대항하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상담자료 일체도 비공개로 보관되며, 대외유출 방지대책, 개인 정보 보호정책을 보유하고 있어 상담 내용 유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Q. 앞으로 어떻게 확대에 나갈 계획이신가요. 기획 단계에서는 해외 근무자를 대상으로 구 상했었습니다. 시행 초기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면 추가에는 해외 근무자에 한해 직계가족까지 수혜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임직원을 해고 싶은 말은?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해외 선진 기업에서 이미 보편화된 직원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남성 비율이 높은 우리 회사의 특성상 심리 상담에 소극적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대 직 장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한 번쯤 ‘건강한 마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FAMILY

‘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가족 소통 이벤트 〈아빠가 쓴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근무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이채우 과장이 올해 두 번째 〈아빠가 쓴다〉의 주인공이 됐다. 이채우 과장은 지난달 31일 장남 래호가 다니는 경기고 1학년 9반을 깜짝 방문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했다. 글=임영현 / 사진=송성훈



아빠가 쓴다

이채우 과장(삼척생산기지 #8, 9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현장) & 장남 래호(경기고 1)

“래호를 이해하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번 호 〈아빠가 쓴다〉의 주인공은 삼척생산기지 #8, 9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현장에서 토건팀장을 맡고 있는 이채우 과장. 2002년부터 현장 근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거리기 아버지’다.

장남 래호와 경기고 1학년 9반 친구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는 현장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착착 진행돼 갔다.

드디어 D-Day. 〈아빠가 쓴다〉 기사들을 정독했다는 이 과장은 교무실 앞에서 아들과 마주친 2014년 첫 번째 〈아빠가 쓴다〉의 해프닝을 피하기 위해 쉬는 시간 전 학교에 미리 도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슬슬 배고픔이 몰려올 시각, 이 과장이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피자함을 들고 1학년 9반 문을 열었다. 그러자 40명이 가까운 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 회사 흥

보 영상 상영 후 아들에게 쓴 편지 낭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과장은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가끔씩 큰소리로 질책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이번 겨울에는 가족 여행 말고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이 과장이 제안하자 교실 안은 커다란 박수 소리가 퍼졌다. 래호는 “아버지가 건설하신 여주 강

전보로 자전거 여행을 가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신청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 과장은 그런 래호가 기특했는지 래호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뽀빠를 선사했다. 래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공격(?)에 놀라면서도 얼굴에는 이내 웃음꽃이 피어났다.

다음 순서는 맛있는 피자 파티! 이 과장은 반 친구들에게 피자 박스를 하나 하나 전달하고, 부족한 건 없는지 일일이 챙기면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

여주었다. 래호 역시 아버지와 의 소중함을 추억을 놓치지 않은 듯 연신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이 과장은 “래호와와의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아빠가 쓴다〉를 신청한 것”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냈다. 래호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반 친구를 위해 봉사점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선뜻 도우미 역할을 자청할 만큼 심성이 고운 아이여서 자랑스럽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게 된다고. 바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오늘을 위해 래호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게 됐고, 래호의 입장에서 래호를 보다 더 이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래호에게

1999년 1월 26일 오후 4시3분. 어린 운명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래호는 어느 아이보다 뽀송뽀송한 복숭아 엉덩이를 가진 귀여운 사랑덩어리였다. 주말 가족생활이 시작된 게 2002년. 래호가 네 살 되던 해야.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충실히 학교생활을 하는 내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그런데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입시를 앞둔 압박감 때문인지, 사춘기의 잔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엄마한테 보이는 예의 없는 언행과 책임감 없는 행동에 아버지는 폭풍 같은 잔소리와 간섭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래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보지만 불같이 참지 못하는 성격에 큰소리로 꾸짖고 나서 후회하는 내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자신이 미워진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아버지답기는 한가?’ ‘교훈과 명언을 늘어놓기만 하는 건 아닌가?’ ‘왜 난 다른 아버지들처럼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작년까지 함께 야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많이 했잖아? 야구 경기도 관람하고, 자전거도 타러 다녔고. 가끔씩은 한강공원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가져구나. 아버지는 래호 또래 아이들의 생활을 이해하도록 보다 더 노력할 테니 래호는 우리 집 가훈인 ‘공경, 우애, 성실’을 실천해 주면 좋겠어.

아침, 우리 이번 겨울에는 여행을 꼭~ 가자. 가족 여행 말고 우리 둘만의 여행 말이야. 일정은 래호가 짠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건설한 현장을 돌아보자는 계획을 세우면 아버지는 굉장히 감격할 것 같은데... 강요는 아니고.

래호야! 너와 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사랑한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 맞춤 솔루션

우리 회사가 시행 중인 직원 힐링 프로그램(EHP) 김정화 상담사로부터 이 과장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들여봤다.

이채우 과장 say
“아이들을 보면 소중한 현재를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까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열중하고 있거나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에 제가 욕하고 언성을 높이며 화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버지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래호는 아버지가 성장해 온 환경에 비해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처럼 래호도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러다 대학이나 가겠어?’ ‘취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아이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기다려 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느 하

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정리정돈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이 방이 어질러져 있어 화가 난다 해도 청소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부모가 나서 정리해 주지도 마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는 도저히 못 자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 스스로 청소하게 될 겁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자녀와 대화하다 화가 난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세요. 부엌에 가서 물 한 모금 세 번에 나눠 마시세요. ‘물을 먹는다, 삼켰다, 넘어갔다’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요. 계속 물을 마셔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녀보다 힘 있는 존재인 아버지가 자리를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음을

평온히 한 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가족 규칙을 만들어보세요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로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래호가 메신저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래호와 메신저로 자주 대화하면서 래호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와 함께 가족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래호가 아버지 문자를 몇 번 무시하면 용돈에서 얼마를 제한’ ‘래호가 먼저 문자를 보냈을 경우, 답장 안하면 한 번을 없애 준다’처럼 구체적인 가족 규칙을 논의해 보세요. 이때는 온 가족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출해 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COLUMN

생각의 좌표

일본의 작은 섬 오시마

두어 달 전 모 지자체에서 쪽방촌에 외부인을 위한 생활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를 동반한 아이들이 하루를 묵으며 생활공간을 체험한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난을 상품화한다는 여론의 못매를 맞고 '오시마 동구 옛 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기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구도심에 맞는 체험관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을 찾는 사람이 늘고 다른 관광지에도 연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나름 쪽방촌의 재생(再生)이라 부를 만한 밑거름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례가 통과됐더라면 해외토픽에 날 만한 일이었겠죠. 씁쓸하다는 말 외에 달리 부르기조차 뭐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다 보니 '재생'이라는 주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일본의 어느 작은 섬 이야기입니다.



오시마와 축제

섬의 이름은 오시마. 현재 약 80명가량의 주민이 사는 세토내해(瀬戸内海)의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세토내해의 12개 섬과 2곳의 항구에서 '바다의 복원(Restoration of the Sea)'이라는 주제로 문화와 예술을 통한 섬의 재생을 추구하는 예술 축제입니다. 2013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관람객들은 배를 타고 섬과 섬을 투어하며 그곳에 설치된 작품과 공연,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들, 풍경을 즐겼습니다. 축제가 펼쳐지는 섬 가운데는 예술의 섬으로 꽤 이름이 알려진 나오시마, 아름다운 물방울 모양의 뮤지엄이 있는 데시마, 옛 구리제련소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이누지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개성 있는 공간을 품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럼 12개의 섬 중 하나로 예술 축제에 참가하는 오시마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거칠게 얘기하자면 오시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술 축제에서 기대하는 아름다운 박물관이나 거장의 작품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섬에는 조그마한 전시장, 부정기적으로 여는 카페가 하나, 그리고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오시마는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요양하던 국립한센요양원이 있던 섬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요양이지

악명 높은 미래에방법이라는 폭력 아래 전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로 데려와 가둬둔 곳이었습니다.

진정한 재생의 의미

1995년이 지나서야 미래에방법이 폐지되고, 마침내 환자들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제 80세를 넘은 노인들이 갈 곳은 없습니다.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기획한 기타가와씨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오시마가 축제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시마를 보지 않고서는 트리엔날레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시마에서 바다의 복원, 재생이라는 주제에 어울릴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겠지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트리엔날레를 마치고 난 후 이곳 입소자인 노무라씨의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오시마를 방문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입소자 스스로 하찮다고 생각하던 것들, 누구한테 보달라고 하기도 뭐했던 것들(죽어간 옛 환자들 사진, 그들이 사용했던 낡은 숟가락, 생체실험을 했던 콘크리트 수술대의 갈라진 틈 등)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는 용기와 의미를 얻었습니다.” 이후 오시마는 밖에서 보았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고 화

단을 만들고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작은 음식을 마련하고 노인밖에 남지 않은 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시마를 보면 낙후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재생은 아니며, 주민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곳을 바꾸고 싶다는 작은 용기를 갖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시마를 보면 낙후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재생(再生)은 아니며, 주민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곳을 바꾸고 싶다는 작은 용기를 갖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차현호 건축가



비즈니스 매너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요즘, 작은 에티켓 실수 하나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보신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관습부터 국제사회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까지 현대건설인이 알아야 할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연재한다.

중동의 에너지 강국 <쿠웨이트>편

“앗살라무 알라이쿰 사와디카프 헬로 봉쥬 아프지마 도토~♪.”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가요제에서 정준하가 직접 쓴 후렴구가 인기다.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쿠웨이트에 첫 출장을 온 현 대리의 입에서도 계속 맴돈다. 음악을 들으며 느지막이 약속 장소로 향하는 현 대리. 쿠웨이트 비즈니스맨들은 약속에 늦는 경향이 있다는 선배의 말만 믿고 십여 분 늦게 도착했다. 그런데 아블쌀! 바이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출장 오기 전 연습해 둔 양복에 입 맞추는 전통인사를 하려고 다가서는 현 대리. 그런데 바이어가 당황해하며 약속을 청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아라비아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점령에 위치하며 페르시아만에 면한 입헌군주국인 쿠웨이트. 1899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39년 정식으로 보호국이 된 쿠웨이트는 1961년 6월 독립 주권을 획득했다. 전 세계 원유매장량 4위의 국가답게 쿠웨이트의 복지 정책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진다. 쿠웨이트인 으로는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쿠웨이트 화폐로 매월 50디나, 즉 170달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이가 성장해 취직할 때까지 170달러를 매달 지급한다. 유치원에서부터 국립대학교까지 교육비, 책값, 의료비, 교통비, 식비 등도 전부 정부에서 지급하고, 해외 유학이라도 가게 되면 교육비와 왕복 항공료는 물론, 매월 2000달러의 용돈도 준다니 역시 부국답다.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친밀감 형성을 위해 '스몰 토크'를 하는데, 부정적인 스캔들이나 정치문제, 이스라엘 관련 언급

은 유의하자.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한 화제는 쿠웨이트 출신의 유명인을 언급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쿠웨이트 출신 세계적인 유명인으로는 여류 화가 수라야 알 바크사미(Thuraya Al-Baqsmi)를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계 석유의 10%가 매장된 곳으로 현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인 나라임을 되새기는 것도 좋다.

또한 약 20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쿠웨이트 출신의 갑부 '나세르 알 카라피' 등을 화제로 삼아 보자. 쿠웨이트 바이어들은 체면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자극하는 대화를 피하

는 것이 좋다. 날씨 이야기나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덕담을 추천한다. 또한 쿠웨이트 현지인들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와 비늘이 없는 생선 등을 먹은 사람을 보면 불쾌감을 나타내고, 채식주의자가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이슬람교 최대의 종교행사인 라마단 기간에는 일몰 전에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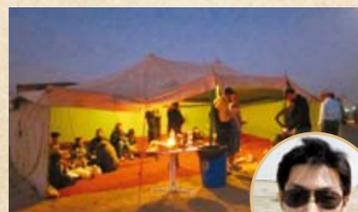
글=박영실 서비스파워 아카데미 대표



사우가 전하는 생생 현지 정보통!

쿠웨이트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가족을 중시하고 신기술을 선호하는 등 개방적인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 친구를 사귀면 집이나 사막 캠프에 초대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쿠웨이트는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디와니야(diwaniya-사진)'라는 곳에서 대접하는데요. 디와니야는 과거 우리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차나 음식을 먹으며 2-3시간이 훌쩍 넘어가도록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비즈니스 이야기도 할 수 있어 더욱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쿠웨이트 사람들은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로 대하는 '의리파'임을 잊지 마시고, 디와니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승중 과장 해양환경해위사업실



현 대리가 미리 깨닫지 못한 쿠웨이트의 비즈니스 관습과 매너

1 '앗살라무 알라이쿰'은 아랍어로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를 의미한다. 쿠웨이트 사람들은 보통 약속, 양복에 입 맞추는 인사를 하지만 이는 친밀한 경우에 한해서다. 친밀하기 전의 관계나 남녀 사이는 몇 마디의 인사와 간단한 악수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쿠웨이트에서는 비즈니스 약속 시간 개념이 희박해 '인살라'를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세상의 약속도 신의 뜻에 따라 늦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들을 따라 늦게 도착했다는 큰코다칠 수 있다.

3 여성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히잡과 아바야를 두르고 다니고, 소브(Thob)라는 긴 드레스에 베일을 두르는데 다른 중동 국가와 비슷하다. 이슬람 국가지만 외국인 여성에게는 히잡 등의 착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노출이 심한 복장의 착용은 피해야 한다.

4 쿠웨이트인들은 자기 집으로 초대 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손님이 차 대접을 거절하면 쿠웨이트인들은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차 대접은 친절함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PEOPLE

영화 <베테랑>이 지금까지도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테랑>은 시종 유쾌한 가운데 형사 서도철과 만나니 재벌 3세 조태오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화. 태오를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일념으로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도철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한 배우 황정민을 만났다. 자료 제공=magazine M / 글=정현목 기자 / 사진=전소윤(STUDIO 706)

만나고 싶었습니다 배우 황정민

형사 도철, 거침없이 내달리는 경주마처럼

<베테랑>의 형사 도철은 정의 실현을 위해 물 불을 가리지 않는다. “수갑 갖고 다니면서 쪽 팔리는 짓은 하지 말자”던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재벌 3세 태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 저돌적으로 달려든다.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뛰어넘는 경주마처럼. 도철을 연기한 황정민(45)은 눈에 띄게 날씬해진 몸매로 인터뷰 장소에 나타났다.

촬영 중인 <검사의전>(이일형 감독)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검사를 연기하느라 살을 5kg이나 뺐다고 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촬영하다 온 탓에 많이 피곤해 보였지만,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말투에서 <베테랑>에 대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국제시장>에 이어 <베테랑>까지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황정민은 ‘쌍 천만’ 배우가 됐다.

○ 류승완 감독에게 재미있는 영화 한 번 보여주고 제안한게 출발점이었다고 들었다.

류 감독이 <베를린>(2013) 막바지 촬영을 하던 3년 전 무더운 여름날, 너무 힘들어 하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당탕탕 재미있게 찍을 수 있는 영화를 하자고 말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류 감독은 우리에게 도철 같은 형사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대본을 썼다고 했다.

○ 이야기는 단순한데,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 이야기는 ‘검나게’ 단순하다. 대본이 너무 쉽게 읽혀 오히려 독이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단순한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 긴장감을 부여할지 많이 고민했다. 인물이 디테일하게 살아 숨 쉬면, 충분히 긴장감을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만 베테랑이 아니라 팀 전체가 베테랑이다. 각자 어딘가 나사가 풀려 있는데, 뭉쳐 놓으면 진짜 강하다.

○ 기본 설정만 보면 <공공의 적> 시리즈(2002~2008, 강우석 감독)가 떠오른다.

처음 대본을 읽을 때 그 영화와 비슷하게 보이던 어쩌나 걱정했다. 하지만 찍고 보니 전혀 달랐다. 형사와 재벌 간 싸움은 비슷하지만, 인물 구성과 이야기 자체가 다르다.

○ 도철은 저돌적이란 점에서 <공공의 적> 시리즈의 주인공 강철중(설경구)과 비슷하다.

한마디로 경주마 같다. 욕 잘하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도철은 철중보단 착하다. 싸움도 더 잘한다(웃음). 도철은 유들유들하고 어딘가 허술하지만 신념 있고 정의롭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다.

○ 광역수사대 형사 역할은 <부당거래>(2010, 류승완 감독)에 이어 두 번째다.

<부당거래>의 형사 철기(황정민)는 구린 일을 하는,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도철과 완전히 상반된다. 철기는 대사가 별로 없어 힘들었는데, 도

철은 할 말 다하고 감정도 분출하니까 연기적으론 더 쉬웠다.

○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간다는 점에서 단선적인 캐릭터로 비칠 수 있는데.

단선적이지만 거기서 오는 통쾌함이 분명히 있다. 단선적인 캐릭터에 어떤 색깔과 연기 디테일을 입혀 단선적이지 않게 만들까 많이 고민했다.

○ 참고한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다.

<리셀 웨폰> 시리즈(1987~98, 리처드 도너 감독)를 다시 봤다. 캐릭터를 위해서가 아니라 <베테랑>의 느낌이 그 영화처럼 통통 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화가 잘돼서 <리셀 웨폰>처럼 형사물 시리즈로 만들면 좋겠다고 류 감독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부당거래> 때 알게 된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친하니까 따로 취재할 필요는 없었다.

○ 액션의 콘셉트는 어땠나.

일반적인 액션과는 느낌이 달랐다. 말 그대로 개싸움이다. 후반부 태오와의 격투신에서 도철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주먹으로 치다가 나중에 태오의 뺨을 때린다. ‘망나니 녀석, 정신 좀 차려!’란 느낌이랄까. 그게 엄청 통쾌했다. 관객도 그렇게 느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통쾌한 액션이었다.

○ 명동 추격신을 찍기 위해 경찰서장까지 설득했다고 들었다.

도철이 도망가는 태오를 잡기 위해 오토바이로 추격하는 신인데, 명동 8차로를 통제하고 찍는 게 쉬운 일인가. 감독과 함께 남대문 경찰서 서장을 찾아가 부탁했다. 허락받기 위해 사진 100장쯤 찍어준 것 같다(웃음).

○ 유아인의 연기가 알밋다고 느낀 순간은 없었나.

체포해야 할 범인이라 생각하면서부터 인간 이하의 망나니라고 봤다. 알밋고 말고 할 게 없었다. 현장에서 (유)아인과 일부러 말을 섞지 않았다. 수갑을 채워야 할 놈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연기를 위한 거리 두기다. 작품 끝나고 나서 친해졌다. 최 상무 역을 맡은 유해진이 더 미웠다. 나쁜 놈 밑에 빌붙어 먹고 사는 놈이 더 나쁘다. 아! 유해진과의 신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 어떤 건가.

최 상무가 있는 구치소 면회실로 증인을 불러들이는 장면에서 ‘들어와’라는 대사를 했는데,

“**영화를 보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요즘 현실에서는 그런 기분을 자주 못 느끼지 않나.**”



그 순간 스태프들이 자지러졌다(황정민의 전작 <신세계>(2013, 박훈정 감독)의 명대사 ‘드루와(들어와)’를 연상시키기 때문). 그래서 대사는 안 하고 손짓만 했다(웃음).

○ <국제시장>(2014, 윤제균 감독)에 이어 오달수와 또 호흡을 맞췄다.

그때와는 다른, 재미있는 케미가 있다. (오)달수 형과 연기하는 게 정말 좋다. 오 팀장 역으로 그를 적극 추천했다. 대사처럼 ‘방귀 냄새까지 같은 않아도’ 호흡이 적절 맞는다.

○ 이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요즘 현실에서는 그런 기분을 자주 못 느끼지 않나. 그리고 위에 있는 몇몇 사람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란 걸 말하고 싶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황정민은 <베테랑>의 류승완 감독과 <군함도>에서 다시 호흡을 맞춘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함도에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 악단장 역할을 맡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한 울분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 노역을 하다 희생된 군함도가 버젓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까지 우리는 무얼 했나? 손 놓고 있다가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에 당한 거다. 명부에 없는 조선인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속에서 천룡이 난다. 비극의 역사에서 무엇을 반추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황정민은...

1970년생. 단역 배우 생활을 하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출연을 계기로 영화계에 본격 진출했다. <로드무비> <너는 내 운명> <사생결단> <부당거래> <신세계> <남자가 사랑할 때> <국제시장> 등에 출연하며 한국 대표 배우로 성장했다.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 <너는 내 운명>으로 2005년 청룡영화제에서 생애 첫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스타프들이 쳐려놓은 반상에 손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소감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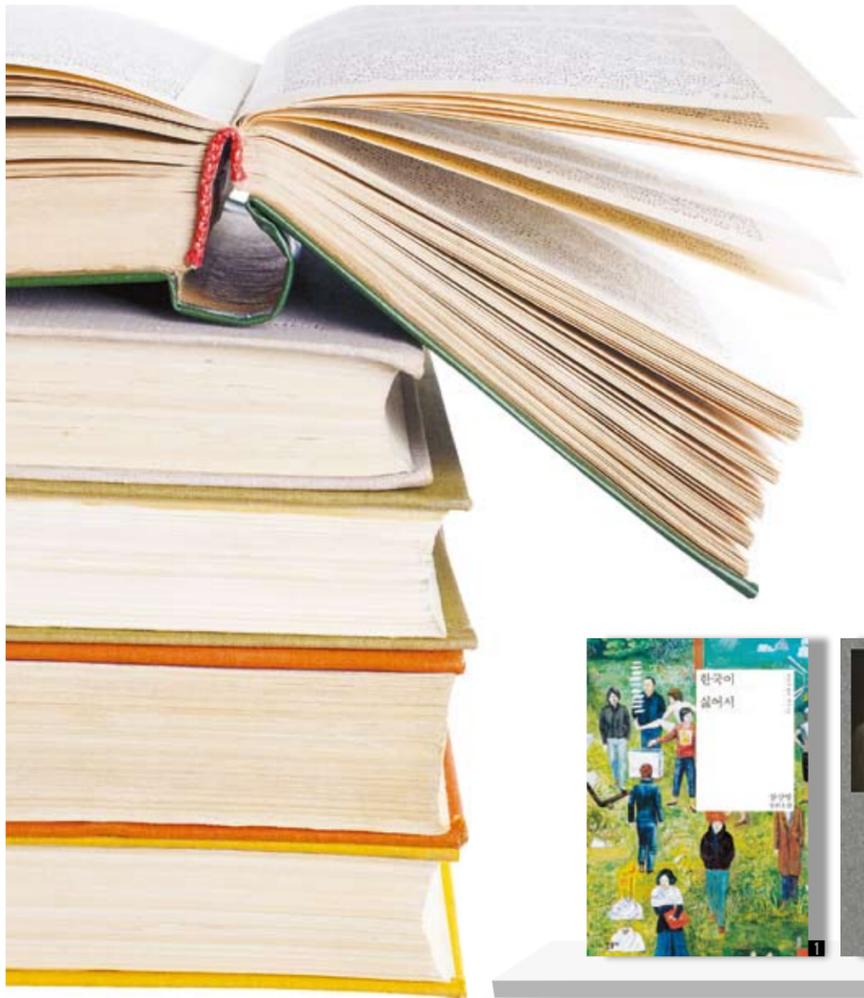


영화 <베테랑> 스틸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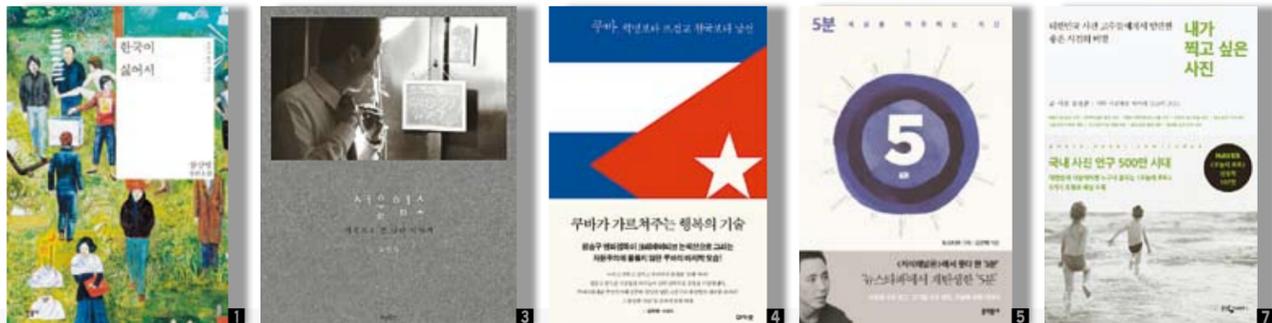
CULTURE

서늘한 바람이 꽤 반갑다. 천천히 거리를 걷는 낭만도 좋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닌가. 그동안 서점을 멀리했다면 퇴근길에 동네 책방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커피 두 잔이면 책 한 권이다. 커피를 마시면서 간 동안 기분이 좋지만 좋은 책을 만나면 적어도 1주일음은 즐겁다. 글-엄지혜 기자(에스24 채널에스)



가을인데, 그래도 한 권쯤은 읽자!

'오늘 뭐 먹지?' 말고 '내일 뭐 읽지?' 어떨까요?



1 왜 다들 공감했을까 **한국이 싫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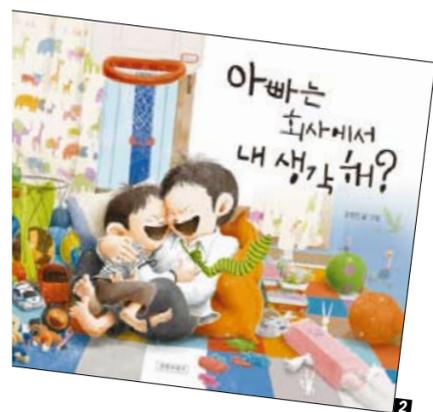
잘 읽고 현실적인 소설을 읽고 싶다면, 요즘 대세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가 해답이다. 소설가 장강명은 첫 사회생활을 건설회사에서 시작해 동아일보 기자로 11년간 일했고 현재 전업작가가 됐다. 『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문학상을, 『2세대 댓글부대』로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서는 일찍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리고 작가는 올해 5월 출간된 장편소설 『한국이 싫어서』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이 싫어서』는 20대 후반의 주인공 '계나'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된 사정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가는 스케이트 선수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사건을 대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소설의 제목을 정했다. 안현수 선수의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5포세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 독자들을 비롯해 기성세대들에게도 절대적으로 공감받은 소설. 작가는 "이 작품이 논란이 되기를 바랐는데 너무 공감만 해주셔서 놀랐다"고 밝혔다. 출퇴근 길에 가볍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지만, 읽고 나면 후유증이 꽤 길다.

2 내 아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책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하?**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쫓겨는 책이다. 아빠의 퇴근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내 아이에게 이 책을 선물하



면 어떨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지원이와 병관아』 시리즈의 저자 김영진의 그림책으로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하?』의 후속작이다.

김영진 그림책작가는 전업작가로 실제 9살, 7살 두 아이의 아빠다. 매일 아침,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작업실로 출근하는 김영진 작가는 "그림책을 통해 엄마-아빠의 하루도 내가 보내는 하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김영진 작가는 집필에 들어가면서, '아빠가 회사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아이를 생각하는 장면'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그림을 그렸다. "두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육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이 난다"는 작가의 실제 경험담으로 그린 작품. 무뚝뚝한 아빠라도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림책이다.

3 사진으로 쓴 남편 이야기 **서울 염소**

사진 에세이 『서울 염소』는 10여 년간 남편의 방황과 갈등을 지켜본 아내의 일기다. 전직 교사인 저자는 사춘기를 겪는 두 딸을 이해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사진을 찍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의 괴로움이 카메라로 들어왔다.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남편. 쇠조羹이 목줄에 묶인 '서울 염소'가 되어, 높은 빌딩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앵글에 잡혔다.

저자는 "사진을 찍을 만큼의 거리를 두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은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낯것 그대로의 얼굴이었다. 저자는 남편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글을 써서 출판사에 투고해 이 책을 펴냈다. 밥벌이의 지겨움은 여전히 있지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언제' 행복하기를 알게 됐다. 신묘한 책이다. 예비 부부, 신혼 부부, 지난한 부부 또는 지루한 부부들이 읽으면 썩 좋을 책이다.

4 한 편의 로드무비 같은 책 **쿠바,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낯선**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도 없다면, 대리만족을 주는 책을 읽으면 된다. 영화 <퀸트하우스 코끼리>의 정승구 감독이 쓴 책 『쿠바,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낯선』은 인문서로 분류된 책이다. 여행기처럼 읽히지만, 교양서와

여행에세이 그 경계에 있는 책이다. 쿠바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이 갔던 독자라면 분명 흠뻑 빠져들어 읽게 된다. 저자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서일까, 마치 '한 편의 로드무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쿠바는 올해 미국과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을 했다.

정승구 감독은 '미국의 손길이 닿기 전, 자본주의의 때가 묻기 전'의 풋풋한 쿠바의 마지막 모습을 포착하고 왔다. 쿠바에서 받은 영감을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다 이 책을 썼다. 가난하지만 전혀 찌들지 않은 쿠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자. 저자의 말처럼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5 하루 5분, 다른 생각 해 보면 어떨까 **5분**

매일 같은 시간, 오로지 '생각'만 할 수 있는 시간 '5분'이 주어진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EBS <지식채널>을 기획·제작했던 김진혁 PD가 『5분』을 펴냈다.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서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5분>을 다른 책이다.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타이틀을 단 『5분』은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던, 진실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널리스트 에드워드 머로, 북지국가 스웨덴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주교 지학순을 비롯해 안녕 하십니까 대자보와 4만7000원의 노란 봉투 캠페인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인다. 이 책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저자는 책을 펴내며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득 발걸음을 멈추는 5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적나라하다. 뜨겁다. 아름답다. 몽클하다"고 표현했다. 오랜만에 몽클한 느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6 일상의 심표를 만직하려면 **그토록 붉은 사랑**

페이스북에서 공감 가는 글로 '페북 스타'가 된 시인 림태주의 두 번째 산문집이다. 림태주는 등단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집은 한 권도 내지 않은 특이한(?) 시인이다. 그런데 그의 페이스북 인기는 아이들 못지않다. 지난해 첫 책 『이 미친 그리움』을 펴내며 "페이스북 덕분에 책을 낼 수 있었다"고 말한 림태주

시인은 할 말이 꽤 많은 사람이다. 출판사 대표로 일하면서 아빠로, 남편으로 살면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산문의 소재가 된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어른'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배움만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40, 50대가 되면 내 영혼을 말랑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토록 붉은 사랑』이라는 제목만 놓고 보면 낮간지러운 에세이가 아닐까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일상의 심표를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응당 고개를 끄덕일 글이 많다. 책 후반부에는 시와 그림, 캘리그래피가 실려 있다. 선물로도 좋을 책이다.

7 주말에 출사를 나가는 당신에게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환영받는다.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더욱 매력적이다. 책으로 사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 장이라도 더 찍어보는 것이 현명한 테지만, 좋은 사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좋은 책인 까닭이다. 이 책은 스테디셀러 『잘 찍은 사진 한 장』의 저자 윤광준의 신간으로 네이버 <오늘의 포토> 선정작 137컷과 저자의 심사평을 실었다.

윤광준 저자는 '글 쓰는 사진가'답게 심사평을 통해 사진 기술로서의 평가를 넘어 사진을 찍은 이의 상황을 읽어냈다. 거칠고 투박해도 사진가의 선택이 드러난 사진, 저자에게 내밀한 쾌감을 느끼게 한 사진들을 골라냈다. 저자는 "현실을 미화하면 좋은 사진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상황'이 드러나도록 찍는 사진을 '좋은' 사진으로 꼽는다.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다면 필독할 만하다. 사람들의 관심사를 읽을 수 있다. 기록한다는 건 개인사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사진은 가장 편리하고 영리한 수단이다.



ART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가 신기한 마법과 놀라운 모험으로 가득 찬 '비밀의 왕국'으로 변신했다. 이곳에서는 12월 13일까지 12명의 작가가 재해석한 동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1



1 유대영 <날 봐요 WATCH ME>
2015, 단채널 영상(1분), 비디오 & 조명, 모니터, 자작나무, 거울
2 이지영 <앨리스의 정원 Alice's garden>
2015, 가변 설치, 혼합재료

비밀의 왕국展

Wonderland in SeMA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2015.8.13~12.13 | 02-2124-8800

미술로 읽는 동화 속 세상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12월 13일까지 개최하는 <비밀의 왕국_Wonderland in SeMA>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가 작가들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도로시M 윤(윤미연), 서효정, 유영운, 이슬기, 이지영 등 12명의 작가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동화적 세계를 나름의 방식과 다양한 장르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피터팬』 등 동화에 나오는 공주와 왕자, 요정, 마법사 그리고 마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실 중앙에 마련된 파빌리온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무대 '비밀의 왕국'으로 연출돼 어린이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시실 내부에는 동화 속 장면을 연상시키는 텍스트와 동화를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가 곳곳에 배치돼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과 공간도 마련돼 적극적인 전시 관람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대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어른들은 유년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3 유영운 <인어 Mermaid> 2009, 50×68×190cm, 잡지, 전단지, 텍스트, 인쇄물, 스티로폼



4 정원 <도시의 꿈-Over the rainbow #6> 2006, 80×128cm, 피그먼트 프린트

5 이슬기 <또 다른 자연 Another Nature> 2013, 72.7×116.8cm, 캔버스에 유채



6 김두진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 No place like home>
2002, 45×72×174cm, 단채널 영상 (무안반복), 모니터, 나무합판, 에나멜 도료
7 도로시M 윤 <8 of Heroines> 시리즈

6



7